

## 이성관계에서 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유 외 속: 상담21 성 건강연구소

이성교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적인 부적응들은 전반적인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성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과 관련된 rule을 자신이 어겼다고 인지하게 될 때 개인들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며(Glickman, 2005), 수치심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피하려고 자신의 욕구충족 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다.

일상의 성 담론들은 성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파트너간의 솔직한 성적 의사소통의 욕구를 좌절시키기도 한다. 성인식과 성적인 기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오해들은 커플간의 결속(bonding)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친밀감의 형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Sexuality의 본질적인 가치인 안아주기의 편안함과 자유로움과 신뢰감 같은 중요한 부분이 성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다. 건강한 파트너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솔직한 성적 의사소통을 막는 장애물의 근원들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한 평가의 부정확성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혼란과 좌절, 불만족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이끌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곤 한다.

성에 대한 오해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과 개인을 인간으로 보기 보다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 보는 방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한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몇몇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바람직한 성역할 즉 남성다움에는 power중심의 욕구나 힘이 넘치는 즉 몸 중심의 담론들이, 그리고 여성다움에는 배려와 친밀감으로 이해되고 있는 마음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성 인식이 성에 대한 오해들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해와 이해들

◆ 남자들은 육체적인 동물(감각적인 만족)이고 여자들은 정서적인 동물(친밀감)이다?

**결과1:** 성욕구에 대한 경험을 남성들은 더 성화(Sexualize) 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낭만화(romanticize)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70%)이 여성(43%) 보다 성욕구의 목표를 육체적인 활동에 두고 있으며 여성(35%)은 남성(13%)보다 사랑이나 정서적인 친밀감을 중요시 하고 사랑에 대한 표현과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갈망을 성적 접촉으로 나타낸다(Regan & Berscheid, 1996, 1999).

**결과2:** 파트너의 원하지 않은 성적인 요구에 대해 친밀감 형성을 편하게 하는 여성이 그렇

지 않은 여성들 보다 성적인 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외숙, 2004)

**결과3:** 성생활에서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정서적인 부분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여성들은 몸의 느낌이나 감각추구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고 싶어 했다(Tolman, 2003)-상보성(complementarity)

◆ 데이트 과정에서 성적 의사결정권과 주도성 같은 권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보다 더 파트너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할 것이다?

**결과1.** 남성 여성 모두 이성교제 과정에서 의사 결정권과 주도성 같은 권력(power)은 여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남성이 더 관계에 몰입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유외숙, 2004)

**결과2.**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서(68.9%: 50.7%), 더욱 친밀해 지고 싶어서(57.1%: 47.0%), 의무감 때문에 남성(34.7%: 19.1%), 관계의 긴장을 피하고 싶어서(46.5%: 34.3%), 파트너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길 원치 않아서(43.2%: 29.3%) 등으로 나타나 남성들이 오히려 관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들은 원치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여성들보다 더 적극적일 것이다?

**결과:** 대처방식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no' 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준비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냥 응하는 비율은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더 분명하게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유외숙, 2004).

◆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 남성들은 여성들이 성관계 시 자신의 욕구는 뒤로하고 남성들의 욕구에 반응하기를 원한다?

**결과:** 남성들의 욕구는 파트너가 성관계 중에 성행위가 좋다는 것을 보다 더 자주 드러내고 더 주도적이고 더 실험적이고 변화무상하며 더 충동적이길 원한다(Giotakos, 2004)

◆ 여성들은 파트너(남성)가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고 쉽게 오르가슴에 이르는 것을 덜 좋아할 것이다?

**결과:** 남성들의 인식은 여성들이 파트너가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쉽게 오르가슴에 이르는 것을 여성들이 덜 좋아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소평가-(Giotakos, 2004)

#### <참고문헌>

Regan, P. C., & Berscheid, E.(1996). Beliefs about the state, goals, and objects of sexual desir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2, 110-120.

Regan, P. C., & Berscheid, E.(1999). *Lust: What we know about human sexual desire*. Thousand Oaks, CA: Sage.

Tolman, D. L.(2003): Gender matter: constructing a model of adolescent sexual health. *Journal of Sex Research*, Feb, 2003.

유외숙(2004): 청소년 성건강상담의 개입전략. 상담심리학회 성상담연구회 제1회 심포지움

유외숙(2005): 데이트 커플의 성적 상호작용: 'no'라고 생각하지만 'yes'라고 말하는 이유.

한국건강심리학회 제4차 학술대회 및 워크샵

Giotakos, O.(2004):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for the ideal sex partner.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Vol 19, No.4, November.